'중국 템플스테이' 1천여명 참여 주목

중국 저장성의 한 사찰이 시범적으로 기획한 '중국판 템플스테이'에 1000여 명의 희망자들이 몰려 해당 사찰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 일대에 화제다. 더욱이 이 프로그램을 선보인 사찰이 저장성 일대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소규모 사찰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는 반응이다.

인민보 영자판(secretchina.com)은 7월 9일 "저장성 씨엔사(寺)가 7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수행자로 살아보기(To Live As a Buddhist Monk)'라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동중국해 연안 일대의 지역 주민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씨엔사의 템플스테이는 3개월에서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찰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수행자 체험'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내 씨엔사에서 숙식과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는 자신의 희망에 따라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을 가져와 공부를 하거나 일상의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미 한계를 초과한 상태라 더 이상 희망자를 받을 수 없다"고 전한 시지두(Shi Zhidu) 스님(씨엔사 주지)은 "사찰에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전해오는 사람들에게 사찰의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전화벨이 좀처럼 자자들지 않고 있다"며 "중국인들이 출가 체험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장성 씨엔사는 7월 15일부터 시작한 수행자 체험에 100여명이 몰려와 주목을 받고 있다.


씨엔사 내부. '수행자로 살아보기' 참가자들이 사용하게 될 공간.

中 저장성 씨엔사 '수행자로 살아보기' 프로그램 선보여

허름한 소규모 시설에도 '출가체험' 줄이어

또한 스님은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중에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며 "어떤 청년의 경우, '강변을 걸으며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며 '사찰에 머물며 그 생각을 접을 수 있는 계기를 찾고 싶다'고 부탁했다"며 "그런 전화를 받고서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에 집어넣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지두 스님은 "'수행자로 살아보기'는 부처님의 삶을 그대로 옮겨보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불성을 일깨워보자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인민보 영자판은 "탬플스테이 참여 희망자들은 '영혼을 정화하고 자아를 찾기 위해', '의지를 다지고 영혼의 안식처를 찾고자', '그릇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등의 이유로 씨엔사에서 '출가 체험'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민보 영자판은 저장공상대학교(Zhejiang Gongshang University)의 마 리앙(Ma Liang) 교수의 말을 인용, "이번 씨엔사 현상은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극심한 불안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가를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그들은 학업과 과업의 압박에 시달리며 결코 챙길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씨엔사가 처음 선보인 '수행자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서 그 단초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 위스콘신 주방위군 첫 군승 임명

크리스토퍼 모어(Christopher Mohr) 중위…32여단 배치


미국 위스콘신 주방위군 사상 첫 군승으로 임명된 크리스토퍼 모어(Christopher Mohr) 중위(사진 왼쪽). 주방위군 군단장 더글라스 플리치프레서(Douglas Fleischfresser) 대령(사진 오른쪽)이 모어 중위에게 32보병여단 베지를 달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 주방위군 사상 첫 군승이 임명됐다고 DVIDS(dvidshub.net) 지가 7월 11일 보도했다. 주방위군은 7월 10일 포트맥코이(FortMcCoy)에서 크리스토퍼 모어(Christopher Mohr) 중위의 군승 임명식을 성료했다.

이날 주방위군 군종 서약에 서명한 후 32보병여단에 배치, 군종 장교로서 복무하는 모어 중위는 여단 지휘관들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장병들의 도덕관과 윤리관을 다지는 한편 장병들과 교류하며 마음챙김을 통해 군 평정심을 찾는 데 힘을 더할 예정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타인의 안전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군인들에게 최상의 가치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모어 중위는 "일주일에 한번 대중 법회를 봉행하며 명상을 통한 마음챙김의 시간을 모든 장병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위스콘 주방위군 군종단장 더글라스 플리치프레서(Douglas Fleischfresser) 대령은 "주방위군에 첫 군승이 영입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장병들의 영적 다양성에 부응한 군의 결단은 장병들의 인성을 곤고히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밝혔다.

32여단 존 리터(John Reiter) 사령관은 "군종은 장병들의 마음의 건강함을 지켜주는 보루"라며 "모어 중위가 장병들의 인격교육, 자살예방, 정신수양을 통해 행복한 군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이 크리라 생각한다"며 기대를 보였다.

모어 중위는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학위를 받고 불교로 개종, 불교법사로 활동하며 입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마하보디 사원서 폭탄 테러…무슬림 소행으로 추정

7월 7일 인도 보드가야, 경미한 피해 입어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가 있는 인도 마하보디 사원에서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사원 근처에 설치된 13개의 폭탄 중 10개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티베트와 미얀마 두 명의 승려가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원 또한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고 보리수도 무사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보드가야에 테러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각으로 7월 7일 새벽 5시30분 무렵. 마하보디 사원을 중심으로 반경 2km 안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인 힌두신문에 따르면 폭탄은 사원과 25미터 불상, 보리수 주변 등에서 터졌으나 문을 제외하고는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폭탄은 테러에 흔히 사용되는 재료인 질산암모늄, LPG 등으로 만들어졌다.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 테러에도 질산암모늄 폭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직 터지지 않은 3개의 폭탄을 해체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이른 아침 시간에 사건이 발생한 것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인도 당국은 미얀마의 극단적 무슬림들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미얀마에서 불교 신도가 무슬림을 탄압한데 대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보복차원에서 이번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 그러나 유일한 단서인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용의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다 얼마 전 12명의 몽타주를 완성해 배포했다.

사원 근처에서 커피숍을 운영중인 라케시 쿠마르씨는 "첫째 폭탄이 터지고 사원은 검은 포화에 휩싸였다. 사원 근처에서 사원에서 그런 공포는 처음 본다. 정말 두려웠다."며 당시를 전했다.

인도인구의 8%만이 불교신자지만, 보드가야는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장소로 신성시 되고 있는 곳이다. 때문에 매년 세계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하다. 사고가 있은 다음날 50여 명의 승려는 평화를 기원하는 의식을 집전하고 일반인에게 사원을 재개방했다.


7월 7일, 불교성지 인도 보드가야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마하보디 사원 앞에 무장 병력들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폭탄 테러가 있은 직후 인도 수상 만모한 싱은 "종교적 장소에 대한 어떤 테러도 용납할 수 없다"며 "다양한 문화가 섞인 인도는 모든 종교에 대한 존중을 중요시해왔다"며 테러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달라이 라마 또한 "평화의 장소가 공격당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고 복수의 감정에 휩쓸리지 말자"고 사람들에게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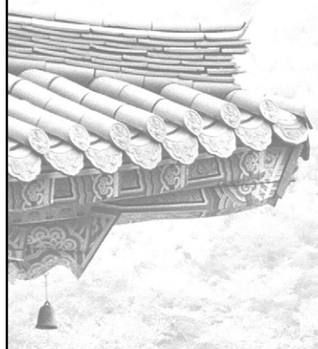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언덕에 작은 상자…4만 여 스님들의 수행처

중국의 가르체(Garze) 티벳자치주 셜타르카운티(Serthar County)에 있는 라렁갈(Larung Gar) 계곡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불교연구소'가 있다고 '메일 온라인(Mail Online)' 지가 최근 보도했다. 메일 온라인 지가 주목한 부분은 1만2천500피트의 고도에 앉은 티벳사원인 설타르불교연구소(Serthar Buddhist Institute)를 중심으로 라렁갈 계곡을 가득 매운 수천여 채의 목조가옥. 이곳에는 4만여 티벳스님들과 티벳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먼 이국에서 찾아온 학자들과 학생들이 살고 있다. 메일 온라인 지는 "척박한 환경도 결코 막을 수 없는 '티벳불교 연구열정'"이라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공 고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 호법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 중

전문 카이로 프락터 양성

1. 교과목
중추신경계 31쌍의 영역 장기 및 근육 통증, 척추질환, 행동제한의 정상화, 현대질병 퇴치, X-RAY 판독법, 테크닉.

2. 대 상
의료기관 종사자, 의사, 물리치료사, 대체 의학 의술인, 체육관련 종사자, 스포츠 마사지사, 피부미용사, 봉사활동인.

3. 기 간
미국 팔머 대학 교재 직강.
주 1일 2개월.

4. 일 시
2013년 7월 23일 13시
▶공개강좌 수강 후 신청 접수(선착순 15명)◀

5. 특 전
- 장학생 교육비 면제.
- 전문강사 배출.

사단법인 국제사회교육원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75-7, 화이트탤 709호(2호선 서울대역 4번출구)
기업은행빌딩 7층 02-861-2833 국제문화사회교육원
HP : 010-7179-1060